

87년 전후 우리나라의 국제위상 비교

87년을 전후하여 GDP, 1인당 GNI 등 우리 사회의 발전 지표를 국제적 순위를 기준으로 비교·분석하여 보고드립니다

< 요약 >

① ’87년 이후 GDP, 1인당 GNI 등은 절대치의 증가뿐 아니라 국제 순위도 지속적으로 개선

- * GDP : (’70) 39위 → (’79) 27위 → (’87) 19위 → (’05) 12위
- * 1인당 GNI : (’70) 114위 → (’79) 75위 → (’87) 63위 → (’05) 48위

○ 순위상승속도는 경제 성숙·IMF위기에 따라 산업화시대보다 다소 둔화되었지만, 선진국보다는 여전히 빠른 성장세 지속

② 수출도 지속 성장했으나, 순위는 ’87년 13위에서 2단계 상승

○ 중계무역국가를 제외하고는 G7국가·중국 다음의 최상위 수준

	’79	’87	’92	’97	’02	’06
수출	15	47	77	136	162	326
(순위)	(27)	(13)	(13)	(12)	(12)	(11)

③ 철강·자동차·조선 등 산업관련 지표도 순위 대폭 상승

- * 선박 (’87) 2 → (’05) 1위, 조강 (’87) 11 → (’05) 5위, 자동차 (’87) 10 → (’05) 5위

④ 삶의 질을 나타내는 인간개발지수(HDI)도 선진국수준으로 진입

- * (’85) 0.712, 37위/111개국 → (’04) 0.912, 26위/175개국

⑤ 정치·사회 등 주요지표도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였으나, 관련 지표의 미비로 인해 국제순위 비교에는 한계

○ 프리덤 하우스 ‘정치적 자유도·시민적 권리’는 선진국 수준 진입

⑥ 재정관련 순위는 재정의 역할강화에 따라 약간 변동되었으나, 여전히 OECD국가중 가장 건전한 수준

- * 국가채무 : (’87) 17/17 → (’05) 25/28, 재정규모 (’87) 22/22 → (’05) 28/28
- * 조세부담률 : (’87) 24/26 → (’05) 26/30, 국민부담률 (’87) 26/26 → (’05) 29/3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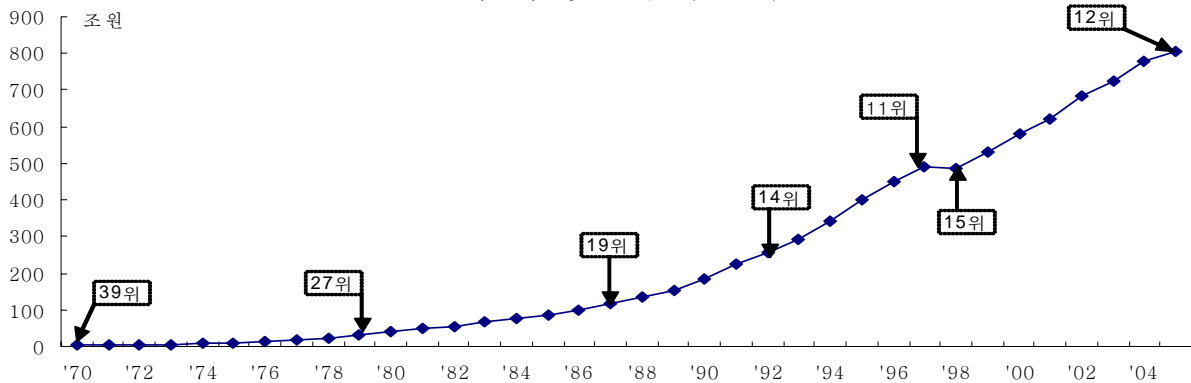
1. 거시 경제지표

① GDP는 ’87년 19위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’05년 12위로 상승

* GDP 순위 : (’70) 39위 → (’79) 27위 → (’87) 19위 → (’05) 12위

- ’87년 이후 네델란드·스위스·스웨덴·벨기에 등 유럽 강소국뿐만 아니라 멕시코, 호주 등 국가의 GDP를 추월
- 최근 인도·브라질 등의 급성장과 IMF 위기시 경제성장을 하락에도 불구하고 12위권을 유지

< GDP 추이 및 국제순위 변동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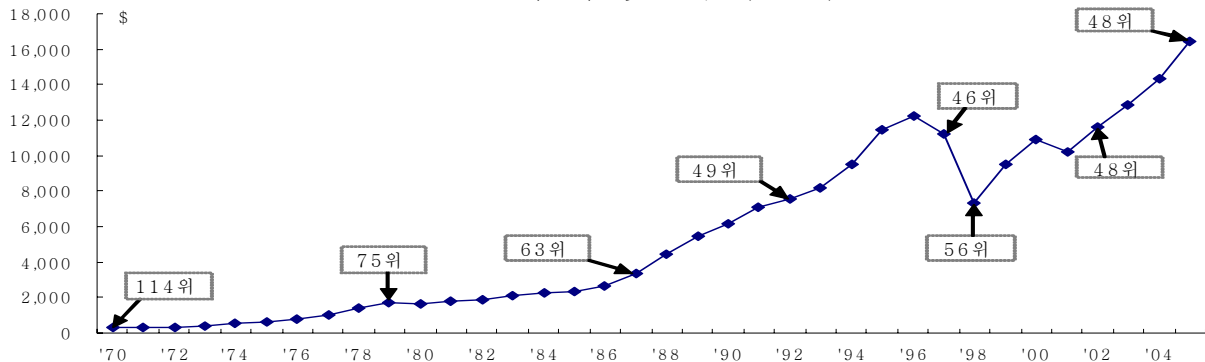
* 출처 : UN통계국 자료 재가공

② 1인당 GNI 순위도 경제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

* 1인당 GNI순위 : (’70) 114위 → (’79) 75위 → (’87) 63위 → (’05) 48위

- ’87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, 리비아, 오만 등 일부 중동국가와 대만, 체코, 슬로바키아 등의 1인당 GNI 순위를 추월
- IMF 위기 당시 세계 56위까지 하락한 1인당 GNI 순위는 국민의 정부 이후 ’97년 이전 수준을 회복

< 1인당 GNI 추이 및 국제순위 변동 >



* UN통계국 자료 재가공

(’07. 5. 31, ’87년 전후 우리나라의 국제위상 비교, 정책조정비서관실)

③ 수출입은 ’87년 수출13위, 수입 15위에서 각각 2단계 상승

- ’87년 이후 상위 10위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왔으며, G7국가와 네델란드 등 중계무역국, 중국을 제외하고는 최상위권 기록
- 수출은 경쟁국이었던 대만·홍콩을 추월하였으며, 중국이 세계 수출기지로 부상함에 따라 국제 순위는 11위 유지

< 수출입 추이 및 국제순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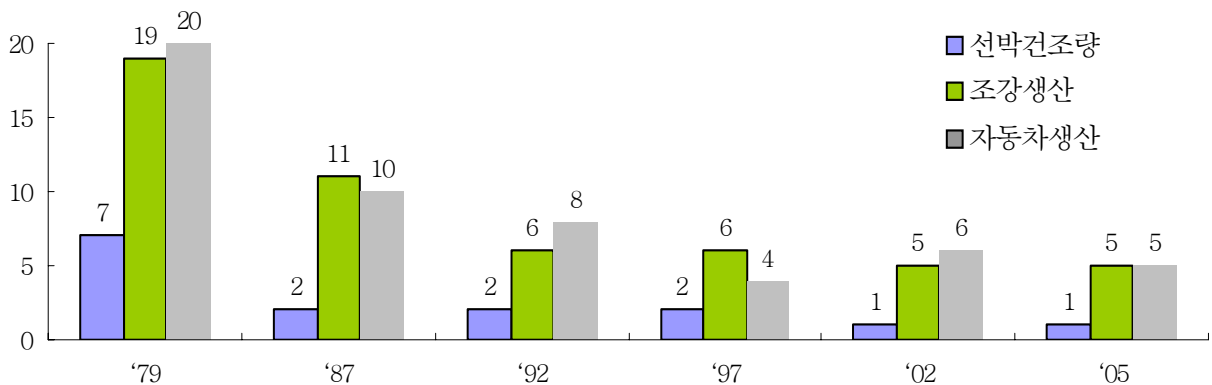
	’79	’87	’92	’97	’02	’06
수출(십억불)	15	47	77	136	162	326
(순위)	(27)	(13)	(13)	(12)	(12)	(11)
수입(십억불)	20	41	82	145	152	309
(순위)	(15)	(15)	(12)	(11)	(14)	(13)

2. 주요 산업

- ’87년 민주정권 집권 이후에 조선·철강·자동차 등 기간산업의 국제적 위상은 지속적으로 상승

* 선박 (’87) 2 → (’05) 1위, 조강 (’87) 11 → (’05) 5위, 자동차 (’87) 10 → (’05) 5위

< 주요 기간산업의 국제순위 >



* 출처 : (선박건조량) Lloyd's, (조강생산) Steel Statistical Yearbook
(자동차) 한국자동차협회

- 90년대 후반부터 세계 IT산업을 선도함으로써 반도체, 휴대폰 등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시장점유율을 기록

* 전자정부지수, 디지털기회지수 등은 ’00년대부터 발표되어 비교곤란

3. 정치·사회

① 정치·시민적 자유도

- 미국 프리덤 하우스의 '정치권 권리와 시민적 자유도' 평가결과도 '87년 4(부분자유국)에서 '05년 1.5(자유국)로 개선

<美, Freedom House의 정치권 권리와 시민적 자유도 평가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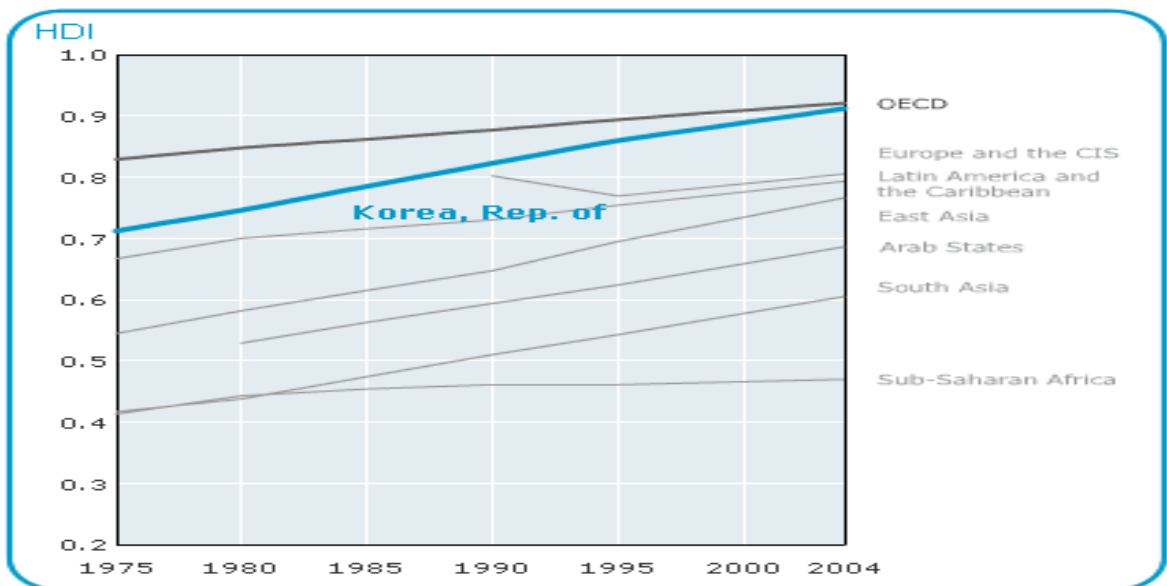


* 등급이 높을수록 자유도는 낮아짐

② 인간개발지수(Human Development Index)

- UNDP에서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(Human Development Index)*도 꾸준히 상승하여 OECD 선진국수준으로 진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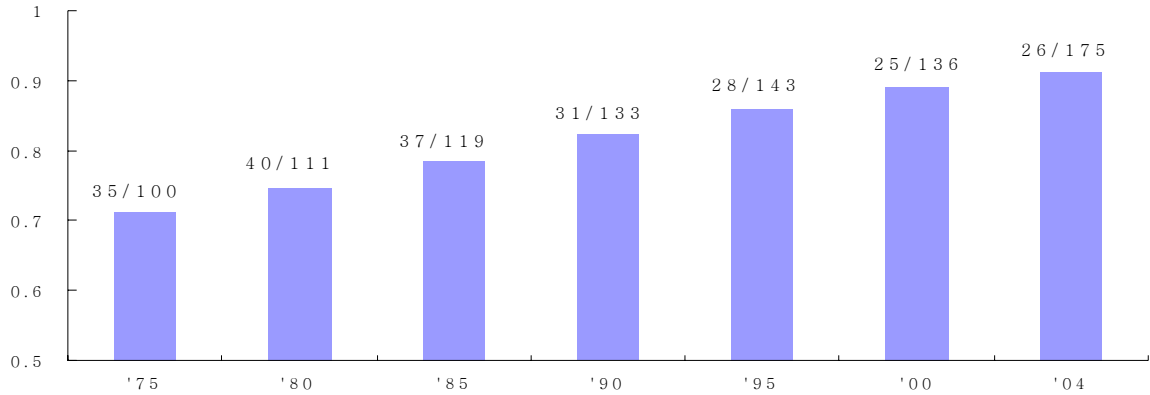
* 국제연합개발계획(UNDP)이 매년 각국의 교육수준과 국민소득, 평균수명 등을 조사해 인간개발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



(’07. 5. 31, ’87년 전후 우리나라의 국제위상 비교, 정책조정비서관실)

- 이에 따라 국제순위도 ’85년 37위에서 ’04년 26위까지 상승
(0.712) (0.912)

< 인간개발지수 추이 >



* 출처 : UNDP, 순위/조사대상국가

4. 국가재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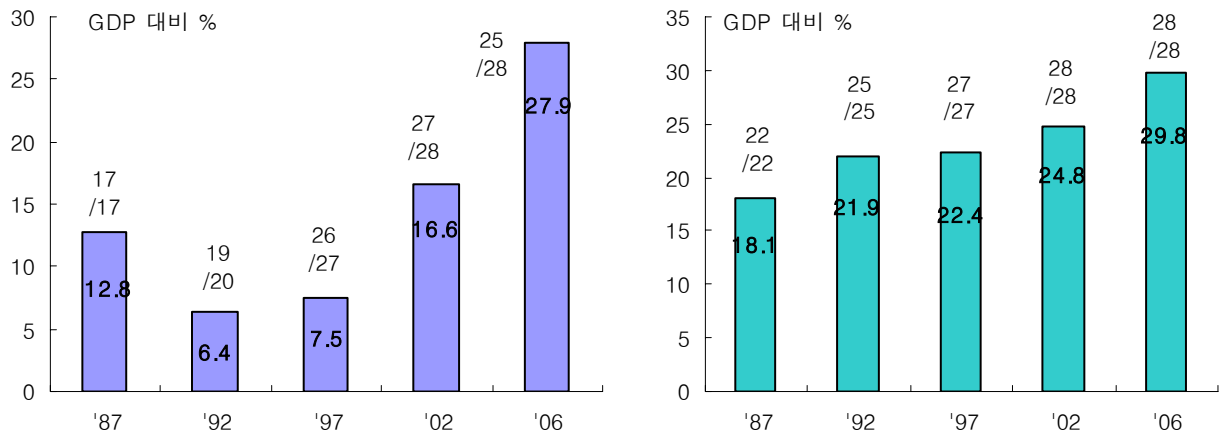
- IMF위기극복,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에 따라 90년대 후반부터 재정관련 순위는 약간 낮아짐

- 그러나, 여전히 OECD국가중 가장 건전한 수준

-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중은 OECD국가중 룩셈부르크를 제외하고 가장 작았으나, IMF 위기 이후 하위 4번째 수준까지 하락

- 재정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중 가장 작음

< OECD국가중 국가채무 순위 > < OECD국가중 재정규모 순위 >



* 출처 : OECD Economic Outlook DB, 국가채무는 OECD기준

(’07. 5. 31, ’87년 전후 우리나라의 국제위상 비교, 정책조정비서관실)

- **국민부담률**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의 성숙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,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**가장 낮은 수준**
- **조세부담률**은 재정수요와 연계하여 상승하고 있으며, 미국·일본 등의 감세정책 추진에 따라 **국제순위는 다소 변화**

< OECD국가중 국가채무·재정규모 순위 >

	'87	'92	'97	'02	'04
국민부담률(%)	16.4	18.5	24.4	24.4	24.6
(순위/국가수)	(24/26)	(26/28)	(28/29)	(29/30)	(29/30)
조세부담률(%)	16.1	17.4	18.0	19.8	19.5
(순위/국가수)	(24/26)	(26/28)	(26/28)	(26/30)	(26/30)

* 출처 : OECD Revenue Statistics DB

※ **국제순위 비교의 한계**

◇ 상당수의 국제지표가 90년대 중반 이후 개발되었거나, 우리나라 통계가 파악되지 않아 국제순위비교의 한계

< 주요 국제순위 지표 개요 >

지표	발표기관	시작년도	한국 순위
세계언론자유지수	국경없는 기자회	'02	31위/168개국('06)
부패인식지수	세계투명성기구	'95	42위/112개국('06)
뇌물공여지수	세계투명성기구	'00	21위/30개국('06)
UN전자정부	UN	'02	5위('05)
디지털기회지수	ITU	'05	1위('06)
국가경쟁력지수	IMD	'89	29위/55개국('06)
국가경쟁력지수	WEF	'97	24위/125개국('05)
여성권한척도	UNDP	'95	53위/75개국('05)
학업성취도 국제비교	OECD	'01	읽기 2위, 문제해결력 1위 ('03)